

# OPEC 주요국 및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와 시사점

석유정책연구실 오세신 부연구위원(ssoh@keei.re.kr)

- ▶ OPEC 3개국과 러시아가 다른 산유국들의 동참을 전제로 원유생산을 2016년 1월 수준에 동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이 동참 의사를 표명함.
- ▶ 그러나 1월에 OPEC과 러시아의 산유량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동결 기준이 너무 느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기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 이란의 산유량 동결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OPEC과 비OPEC 석유수출국 사이에서 이란을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산유량 동결 합의의 이행 가능성을 높임.
- ▶ 산유량 동결 합의가 감산 합의로 발전될 가능성은 석유수출국들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 점유율 확보를 주장한 사우디 등 OPEC 회원국들의 기조가 변했기 때문임.

## 1. 개요

### ▣ OPEC 3개국과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러시아는 2월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이란과 이라크 등 산유국들의 동참을 전제로 2016년 1월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 사우디는 ‘15년 11월에 주요 비OPEC 산유국이 동참할 경우 감산 의사를 표명했으나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러시아의 원유생산 동결합의가 시장에서 의미 있게 작용함.
- 이란과 이라크가 산유량 동결 결정 지지를 표명하면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공조가 본격화되었다는 기대감이 형성됨.
  - 2월 17일 WTI는 전일 대비 \$1.62/b(5.6%) 상승한 \$30.66/b을, Brent는 \$2.32/b(7.2%) 상승한 \$34.50/b을 기록함.

“사우디,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 OPEC 3개국과 러시아는 1월 수준의 원유생산량 동결에 합의”

### ▣ 주요 산유국들의 반응

- OPEC 회원국들은 산유량 동결 합의 직후 전반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란을 제외하면 동참 의지도 적극 표명함.
  - 사우디 석유장관은 회의 직후 “이번 결정은 향후 몇 개월 간 석유시장을 평가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감산 논의 가능성을 시사함.

- 국가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는 베네수엘라는 이번 회담을 성사시킨 당사국으로서 이란, 이라크와 회의를 통해 동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언급함.
- 쿠웨이트는 주요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이 생산 동결에 참여할 경우 동참할 것이라며 유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함.
- UAE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모든 산유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동참 의사를 표명했으며, 보다 완벽한 협력이 담보된다면 감산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이라크는 유가 부양을 위한 행동에 동참할 의사를 표명했으나, OPEC 회원국들과 그 밖의 주요 산유국들의 협조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 이라크는 당초 IS와의 전쟁을 빌미로 공조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월 산유량이 사상 최고치인 4.35백만b/d를 기록하고 2월에는 북부 유전의 생산 차질로 산유량이 감소한 것이 동참 선언의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음.
- 반면, 이란은 4개국의 산유량 동결 결정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으나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

“러시아를 제외한 비OPEC 산유국들은 산유량 동결 참여에 다소 부정적”

- 비OPEC 산유국들 중에서는 협상 당사국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산유량 동결 동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러시아는 다른 산유국들의 공조를 전제로 산유량을 동결할 것임을 밝혔으나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Rosneft 고위관계자는 사우디와 이란의 적극적 협조가 전제되어야함을 강조함.
  - 브라질과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등은 산유량 동결 합의 다음날 Bloomberg에 이메일을 통해 유가 안정화 방안 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함.

## 2. 산유량 동결의 실효성

### ▣ 공급 과잉 완화 가능성

- 합의 내용에 따르면 산유량의 동결 기준을 1월로 삼고 있어 공급과잉을 완화하기에 미흡한 합의로 평가됨.
  - 러시아와 OPEC의 원유생산이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예상되는 세계 석유수요를 고려할 때 공급과잉 규모는 약 1백만b/d(연간 3.6억 배럴)로 전망됨.
  - 산유량 동결 목표치인 2016년 1월 기준의 생산량은 사우디와 이란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능력에 근접한 수준임.

○ OECD의 상업용 원유재고가 12억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적으로 3억 배럴 이상의 재고 공급과잉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으로 평가됨.

- 휘발유 재고는 2015년 연초 237.2백만 배럴에서 2월 중 243.1백만 배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11월 27일에는 216.9백만 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음. 휘발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연료로서 경제상황 변화에 재고수준이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번 감소 결정이 세계 원유 재고 공급과잉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

〈 OPEC 회원국별 원유생산 능력 및 전망 (백만b/d) 〉

	실제 생산('16년 1월)	생산능력	'17년 생산 전망*
알제리	1.10	1.12	1.14
앙골라	1.75	1.81	1.90
에콰도르	0.53	0.55	0.57
인도네시아	0.71	0.71	0.83
이란	2.99	3.60	3.58
이라크	4.35	4.35	4.80
쿠웨이트	2.83	2.83	3.00
리비아	0.38	0.40	1.20
나이지리아	1.84	1.91	2.00
카타르	0.68	0.68	0.70
사우디아라비아	10.21	12.26	10.70
UAE	2.89	2.93	3.00
베네수엘라	2.37	2.46	2.70
총계	32.63	35.61	36.12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2월호(2016.2.9)

\* Petroleum Economist

〈 산유량 동결 합의 이행 시 '16년 예상되는 공급과잉 규모 〉

'16년 1월 세계 석유공급(A)	'16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B)	'16년 공급과잉 전망(C=A-B)	'15년 공급과잉 규모(D)	공급과잉 증감 (E=C-D)
96.5백만b/d	95.6백만b/d	1.0백만b/d	2.0백만b/d	-1.0백만b/d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2월호(2016.2.9)

■ 합의 이행 가능성

○ OPEC 회원국들 중 이란이 산유량을 동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OPEC 3개국과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이란 정부는 카타르 회담과 같은 날 이란 원유수출이 현재 130만b/d에서 수개월 내에 200만b/d로 증가할 것이라 발표함.
- 이란의 Bijan Zanganeh 석유장관은 2월 23일 지역 뉴스를 통해 “산유량을 동결

“이란의 동결 참여 불투명으로 OPEC 3개국과 러시아 간 동결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음”

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언급해 사실상 생산 동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OPEC 산유국들 사이에서 이란을 배제하는 방안이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산유량 동결 논의가 진전을 보임.

- 러시아 노박(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3월 1일 언론을 통해 “73%의 석유수출국들이 이란의 동참을 전제로 산유량 동결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란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이란의 배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일부 OPEC 회원국들과 오만이 산유량 동결 합의에서 이란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짐.

• 1990년 쿠웨이트 침공으로 서방 경제제재를 받았던 이라크도 1998년부터 OPEC으로부터 생산쿼터 면제를 부여 받은 선례가 있음.

- 한편, OPEC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란에게 공식적으로 산유량 동결 면제가 제안된 바는 없음.

○ 유가 안정화를 위한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의 회의가 3월 중순 이후 예정됨에 따라 산유량 동결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됨.

- OPEC 회원국인 나이지리아 Emmanuel Ibe Kachikwu 석유자원부 장관은 3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이 러시아에서 3월 20일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유가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언급함.

-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부 장관은 3월 4일 자국 언론(Interfax)과의 인터뷰에서 산유량 동결을 위한 산유국들과의 회의가 3월 20일~4월 1일 사이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카타르 중 한 곳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전함.

### ▣ 감산 논의 발전 가능성

○ 사우디아라비아 Ali al-Naimi 석유장관은 산유량 동결 합의 직후 “이번 결정은 석유시장을 평가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OPEC의 감산 가능성을 시사함.

-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석유수출국들은 산유량 동결이 현재의 공급과잉 규모를 감안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유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감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2월 10일 런던 IP Week 콘퍼런스에서 “석유수출국들이 1백만b/d 감산하면 유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사우디 Ali al-Naimi 석유부 장관, 산유량 동결 합의 직후 OPEC 감산 가능성 시사”

- 또한 OPEC 걸프회원국인 UAE의 Suhail Al Mazrouei 에너지부 장관이 2월 12일 경에 OPEC이 감산에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5%의 감산 제안을 받았다고 1월 28일에 발표한 바도 있어 감산 가능성이 일부 제기되어 왔음.
  - 걸프협력기구(GCC) 관계자에 따르면 사우디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짐(2016.2.1).
- 하지만 OPEC과 러시아 등의 석유수출국들이 감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산유국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됨.
- 금번 OPEC 3국과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결정은 당사국들의 경제적 사정이 최대한 반영된 느슨한 목표이므로 이란이 협력하더라도 의미 있는 유가 반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감산 합의로 발전되기는 어려움.
  - 원유감산으로 인한 원유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반등 정도가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란 확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세계 석유수요가 경기회복으로 빠르게 증가하거나 비OPEC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함.
  - 사우디의 1월 원유생산량은 10.2백만b/d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b/d 이상 증가했으나 저유가 장기화로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Roubini Global Economics에 따르면 사우디의 외환보유고는 6,300억 달러이나 매월 50~60억 달러씩 소진되고 있는 상황임.
  - 사우디는 2월 19일 헤즈볼라의 활동을 이유로 레바논에 국방비 지원 중단을 발표했으나 재정문제도 큰 요인으로 분석됨.
  - 러시아는 지난해 마이너스 경제성장(-3.7%)으로 감산에 부정적이나 1월 원유 생산이 사상 최고치인 10.9백만b/d를 기록했고 유전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증가보다는 감소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 Rosneft 고위 관계자는 합의에 대해 회의감을 표명하면서 러시아는 송유관 동파 위험으로 겨울철에 산유량을 줄이기 어렵다고 언급함.
  - UAE의 재정수지는 2014년 10% 이상의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4%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에서 2월 23일 개최된 IHS-CERA 컨퍼런스에서 사우디 석유장관은 산유국들 간의 신뢰부족으로 감산까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사우디 Ali al-Naimi 장관은 참석한 석유메이저 기업들을 향해 저유가 전략으로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을 줄여야 한다며 생산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피력함.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OPEC 관계자들은 오는 6월 예정된 OPEC 정기총회에서도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으며,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증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에나 감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OPEC이 감산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지난해 아시아가 전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의 65%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도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OPEC 중동 산유국들 간 외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3. 유가 영향과 시사점

#### ▣ 유가 영향

- OPEC과 비OPEC 석유수출국들의 산유량 동결 시도가 현재의 공급과잉을 완화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최근 다소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됨.
  - 브렌트 최근월물 가격은 3월 7일 \$40.84/b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40/b 선을 회복함.
  - 산유량 동결이 미흡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유가가 \$20/b 대까지 하락한 것이 OPEC의 생산 경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작용했음을 반증함.
    - 그동안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보를 주장한 사우디 등 OPEC 회원국들의 생산전략 변화가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음.
- 따라서 유가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달러화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올해 \$40~50/b 범위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3월에 예정된 OPEC과 비OPEC 석유수출국 회의에서 산유량 동결 합의가 확정되더라도 석유수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4월에는 유가 회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의 원유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분기에 유가 상승폭이 일부 반납될 수 있음.
  - 하지만 2016년 전체를 놓고 보면 주요 산유국들의 공조 논의 지속 가능성으로 국제 유가의 바닥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석유시장의 공급과잉은 연말까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국제 유가는 상승세 보다는 상향 안정세 가능성이 높아 보임.

“산유량 동결 시도에 따라 국제 유가는 상승국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

“2016년 유가는 \$40~50/b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중국과 러시아, 중남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유가가 다시금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함.

▣ 시사점

- OPEC의 이러한 석유공급 정책의 기조 변화는 경제적 취약성에 근거하므로 이들 중동 산유국들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및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들이 재정악화로 인해 재정지출 축소를 계획함에 따라 중동 내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금번 동결 결정에 따라 국제유가가 반전되는 상황을 볼 때, 향후 OPEC 및 비 OPEC 국가들이 감산결정에 도달할 경우 유가의 상승구조는 쉽게 새로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나라는 감산결정과 관련된 제반 OPEC 및 비OPEC 국가들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對중동 경제·에너지 협력전략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과 함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우리나라는 감산결정과 관련된 제반 OPEC 및 비OPEC 국가들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對중동 경제·에너지 협력전략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저유가 장기화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겠음.

“OPEC의 석유공급 정책 기조를 산유국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및 에너지 협력 강화 기회로 사용해야 함”

“저유가 시기를 산업구조 개편 및 고부가치 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는 국가적 노력 필요”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국제 원유 시황과 유가 전망」, 2016. 1  
 Bloomberg, Nigeria Says OPEC to Meet Non-Members in Russia on March 20, March 3, 2016  
 \_\_\_\_\_, Oil Freeze: Iraq Ready to Cap Output, Iran to Maintain Share, February 16, 2016  
 Financial Times, Saudi Arabia declares oil output cut 'is not going to happen', February 23, 2016  
 IEA, Monthly Oil Data Service  
 \_\_\_\_\_, Oil Market Report, February 9, 2016

Petroleum Economist, OPEC suffers internal division as the market slumps,  
December 9, 2015

Reuters, Russia says OPEC, non-OPEC meeting may be held between March  
20 and April, March 4, 2016

\_\_\_\_\_, OPEC watching Iran, Russia, unlikely to cut output in June, March 1,  
2016

\_\_\_\_\_, Russian oil bosses voice support for oil output freeze, not cut, March  
1, 2016

The New York Times, Saudi Arabia Keeps Pumping Oil, Despite Financial  
and Political Risks, January 27, 2016

The Wall Street Journal, Iraq to Cap Oil Output If Other Producers Follow  
Suit, February 18, 2016

미국 에너지정보청([www.eia.gov](http://www.eia.gov))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http://www.petronet.co.kr))